

#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 에 나타난 교육의 원리

장윤석(청주교대)

## 요약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영혼을 깨우는 전도설교의 측면에서 저술되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전도설교의 측면을 넘어 교육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에드워드의 탁월한 교육학적 통찰력을 구속사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 신앙교육은 신학실종과 혼합주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대 신앙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구속사의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통해 바른 신앙교육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신앙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유의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에드워드의 구속사 설교 전개방식을 통해 총 7가지의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 구속사, 전도설교, 신앙교육

## I. 서론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전도설교의 맥락에서 저술되었다.(김홍만, 2015:49) 전도설교는 청교도들과 미국의 영적 대 각성 시기에 행해졌던 설교이다. 전도설교의 주된 대상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 출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위한 준비 과정도 간단하고 문답 역시 간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고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분별하지 않는다.

청교도 시대와 미국의 영적 대 각성 시기의 상황도 현재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자들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전도설교에 집중했다.(김홍만, 2015:1)

특히 개척과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전도설교에 집중했다. 교리문답, 기독교 강요와 같은 기독교의 딱딱한 설교에 집중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회심치 못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설교 강단에서 이러한 딱딱하고 원론적인 설교를 하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버티어 낼 수가 없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의 표정과 태도를 관찰하며 성도를 분별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강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강단이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은 강단을 위로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집사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조는 사람들을 깨웠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 되고 있는데 즐고 있는 것은 도무지 청교도 전통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전도설교의 주 대상은 명목상 신자(Nominal Christian) 이다. 교회에는 출석하며 그리스도에 목말라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에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영혼을 깨우기 위한 설교에 집중했다. 칼빈 역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주리고 목말라 있지만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독교 강요의 저술 목적 역시 전도설교의 목적과 일치한다.(고영민, 2006)

칼빈의 경우 명목상 신자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공격적으로 칼빈의 사상을 변형시킨다. 성도를 분별하여 끊임없는 전도설교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 신자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감정론(Religious Affection) 역시 성도의 신앙 상태의 분별을 위해 저술되었다. 열두 가지의 표지들을 확인하면서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열두 가지의 표지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분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다.

청교도 전통에서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매우 수준 높은 설교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편리한 기기도 없었다. 그렇지만 위대한 저술 작품들이 출간되었다. 제임스 더렘의 경우 이사야 53장을 총 72회에 걸쳐 강해하였다. 이사야 53장은 12절로 구성되어 있다. 한 절을 가지고 6번씩 강해하여 설교를 하였다. 그 당시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전도설교의 경우 대부분 강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 역시 본문은 이사야 51장 8절 한 절이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한 절의 본문을 가지고 책 한권 분량의 설교문을 작성하였다. 한 절의 본문을 가지고 연속되는 맥락 속에서 에드워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자 노력했다. 에드워드는 특별한 설교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강단에서 준비한 원고의 본문을 읽었다.

설교의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연속 봉독(Lectio continua)과 선택 봉독(Lectio selecta)이 있다. 전도설교는 철저하게 연속 봉독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선택 봉독을 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속 봉독은 목회자가 자의적으로 설교의 주제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흐름에 맞추어 설교하도록 한다. 칼빈의 목회 역시 연속 봉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칼빈은 심지어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후 다시 청빙되었을 때, 추방당했을 때 설교했던 바로 다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하지만 연속 봉독은 실제의 목회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연속 봉독의 방법으로 목회할 때 성도들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쉽게 지루해 한다. 그리고 목회자 개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양적 성장과 같은 목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 목회에서는 연속 봉독의 방법보다는 선택 봉독의 방법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봉독 역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는 본문 선택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짜깁기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본질은 왜곡되고 목회자의 견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전해진다. 신자들은 목회자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렵게 된다.

그러다 보면 성도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기가 쉽다. 목회자 개인의 견해는 개인의 견해일 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강단을 통해 바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 신자는 점점 병들어 간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처음에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고민했을 때 바로 예배의 개혁부터 시작한 것이다. 바른 예배는 경건한 삶의 핵심이며 성도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준다.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연속 봉독의 방법이 유효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교회교육을 위해 저술된 작품이지만 일반 교육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의 원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드워드의 구속사를 통해, 교회교육 및 일반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 II. 현대 신앙교육의 문제

### 1. 신학실증

신학교육은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부한다. 짧은 경우 3년, 긴 경우 7년 이상의 시간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한다. 신학교육의 형태가 바뀌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신학 외에 다른 학문을 학부에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의 3년 과정을 거치면 목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은 목회자 수업을 위해 상당히 짧다. 목회자는 영혼을 다루는 영혼의 의사이다. 의사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 수련의 4년을 거쳐야 비로소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0년간의 수련 과정은 매우 혹독하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물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혹독한 과정을 거쳐 의사가 배출되는 것과는 달리 3년의 목회자 수업은 시간적인 절대량이 부족하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과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학 수업을 받는데 필요한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생활비 역시 신학생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물론 교육에 있어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이 짧아진 것은 아니다. 대학원 중심으로 교육이 바뀌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예전에는 학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부의 수준의 지식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의 교육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부 수준의 교육을 대학원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 수준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도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 학문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과정을 다시 개설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원래 목표로 하였던 전문성의 추구보다는 학부에서 갖추어야 하는 기초 소양을 획득하면 졸업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도 대형 교회를 꿈꾼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쳐도, 신학생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크게 된 교회를 보여 주십시오.”와 같은 안타까운 반응을 보인다. 신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수 사회에서도 신학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자신이 배운 신학을 절대화하다 보니 교수들 사이에서도 일치를 이루기 어렵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목회자 역시 직업이 되었고, 목회는 사업(Business)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은 신학보다는 경영,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일반학문이 되었다. 바른 설교를 해서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떠나가기 쉽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학교육은 바른 목회를 위한 준비과정이기 보다, 목회자의 직분을 얻기 위한 통과시험이 되었다. 신학공부를 하며 학교에 내는 등록금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투자가 되었다. 그래서 목회는 내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이 되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했기 때문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경제적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신학공부를 마친 목회자들은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신학을 공부하는 세미나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나 교회성장학을 가르치는 세미나의 경우 비싼 등록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 또한 살아가기 위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목회는 직업을 넘어선 소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직업 활동이 소명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목회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타락한 세상에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

주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눅12:9)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다.(딤후6:8)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경우 교회의 신자들조차 코웃음을 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알게 모르게 소비주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얼마만큼의 물질과 직분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대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사례비는 생활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연봉의 개념이 되고 있다. 과정은 생략한 채, 성도를 많이 모아 많은 헌금을 이끌어내는 목회가 성공한 목회가 되었다. 한때 많은 목회자들이 로버트 솔러의 “불가능이란 없다”를 읽으며 이와 같은 양적 성장 위주의 목회를 꿈꾸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설립하면 그 누구도 설교에 대해 논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회자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권징이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하다. 잘못된 설교와 행동을 보일 경우 문제제기와 더불어 권징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신학은 목회에서 점점 실종되는 모습을 보인다.

## 2. 혼합주의

고전 논리학의 기본 명제는 “A는 A이며 비(非) A는 A가 아니다”(김기찬, 1995:15)이다. 고전 논리학의 기본 명제는 절대 기준의 가능성을 말한다. 옳은 것이 있으면 틀린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dialectics)이 등장한 이후로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정립(thesis)과 반정립(antithesis) 사이에 종합(synthesis)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은 철학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신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쳤다.(김기찬, 1995:18)

쉐퍼(F. Schaeffer)는 절대 기준의 상실이 절망선(despair line)을 건넌 것이라고 표현한다.(김기찬, 1995:27)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은 분리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쉐퍼는 분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한다.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이웃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자연과의 분리이다. 절대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리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절대 기준을 부정해도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 세계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존 케이지의 경우 버섯에 관심이 많았다. 동전을 던져 작곡하기로 하도, 뉴욕 필하모닉은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세워 두기도 했던 그였지만, 우연의 기쁨을 가지고 버섯에 다가설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우연의 사고방식으로 버섯에 접근한다면 존 케이지는 금방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찬, 1995:114) 이처럼 절대 기준을 부정해도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기준을 요구하며 그 기준은 옳고 그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은 처음에는 철학에 영향을 끼쳤다. (김기찬, 1995:18) 그리고 철학이 음악과 미술 언어에도 영향을 끼쳤다. 신학은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는 종합의 영향이 신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자유(freedom)와 존엄(dignity)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기준 안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엄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 기준의 영향을 부정하는 철학사조의 흐름 속에 기독교 신앙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절대 기준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인간은 자유와 존엄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스키너(B. F. Skinner)의 “자유와 존엄을 넘어(Beyond Freedom and Dignity)”이다. 스키너의 조건화 이론의 핵심은 통제이다. 스키너는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라는 가정 하에 조건화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통제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노출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은 특정 집단을 통한 통제를 강조한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집단의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폭로한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 이러한 주장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그때마다 교회를 보존하셨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 설을 통해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제에게 속했던 속죄권을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에게 열어 주는 역할을 했다. 성경으로 무장한 평신도가 성직자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신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존엄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초기에는 그 순수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자신의 종교관을 혼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비슷하게 변질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수한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속 신앙도 아닌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는 것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배경은 청교도 신앙과 미국의 영적 대 각성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적인 대각성은 선교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미국 청년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세계 전역으로 선교를 하러 나갔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도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였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 당시 한국은 풍진등화와 같은 정세 속에 있었다. 일본과 중국의 끊임없는 영향력 속에 있었고, 나라의 정치상황은 불안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진다는 것을 선교사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용된 전도책자는 양이 많은 편이었다. 요즘 사영리라는 얇은 책으로 전도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교회 초기에 사용되었던 장원 양우 상론(張遠兩友相論)의 경우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이 78페이지이다.(김홍만, 2012)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신앙적 수준을 세례문답 시 신자들에게 요구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평양 대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바른 교리에 입각한 설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설교만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한국 교회의 순수성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기복적 성격이

강한 나라이다.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정서와 기독교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했다. 목회자들은 복을 주제로 설교하며 성도들의 관심을 진리에서 복으로 돌렸다. 복을 주제로 설교하는 교회는 신자들이 현금도 쉽게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복적 성격이 전체의 흐름이 되어 버렸다.

혼합은 신앙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졌다. 기독교인의 가치관 역시 소비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현대 사회는 소비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소비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은 소비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노동 명령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않는다.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안중희, 2013:53)

기독교 세계관은 성도가 순례자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주의 세계관은 성도가 순례자임을 잊고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번연(J. Bunyan)은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에서 소비주의적인 세계관을 허영의 시장(Vanity Fair)으로 표현했다.(김홍만, 2001:246) 진리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허영의 시장의 물건들은 도무지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소비주의 세계관은 성도에게도 하늘의 천성 외에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욕구에 목말라하게 된다. 소비주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신자는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영혼의 가련한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소비주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신자의 모습만 남게 된다. 기독교와 소비주의가 혼합된 기독교도 아니요 소비주의도 아닌 혼합된 형태의 세계관이 존재하게 된다.

혼합주의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혼합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분리되게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세계관을 모두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 일관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분리의 문제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의 건전한 생명력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소비주의와의 혼합을 위주로 설명하였지만 얼마든지 다른 세계관과의 혼합이 가능하다. 자신도 모르게 혼합되어버린 세계관 속에서 진리를 향한 갈망은 점점 사라지고 만다.

현대사회는 혼합 이상의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대사회는 혼합을 넘어 통섭의 시대로 가고 있다. 통섭은 혼합보다 더욱 변형이 심한 것으로서, 무엇이 혼합되었는지 형체가 보이지 않게 섞여 버린다. 혼합이 물리적 종합이라면, 통섭은 화학적 종합이다. 시간의 절대량으로 본다면 신자는 교회에서보다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깨우고 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신자 역시 사회가 가르치는 사상과 교훈에 쉽게 휩쓸려 내려가게 된다.

### Ⅲ.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에 나타난 교육 원리

#### 1. 온유함

에드워드는 글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온유한 문체를 사용한다.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서도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 에드워드는 그 점에서 지적인 사람으로서의 최고 경지에 선 사람이다. 일부 학문적인 사람은 지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다. 때로는 그러

한 오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안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다는 것을 빌미로 지식의 칼을 휘두른다면, 그 지식은 무기가 되어 상대방을 해치는 지식이 될 것이다. 지적 교만은 사람을 병들게 하며 스스로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참된 앎은 바로 “무지의 지(知)”이다. 즉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앎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는 착각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 보석을 발견했어도 그것이 보석임을 알지 못하기에 놓치고 만다. 실제로 사람들이 안다고 표현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 그렇기에 온유할 수 있었다.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이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주의 종”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결코 자신이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지배와 우위에 서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글을 쓰면서도 설교의 본문 내용이 자신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목회자 역시 성도의 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예배한다는 헬라어는 “Proscuneo”이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드워드는 설교자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설교문을 통해 보이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힘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것은 권력이자 권위가 아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권위이다. 권위는 하나님께 진실로 무릎 꿇은 태도에서 나온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폐쇄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계에서 힘이 있고 넉넉한 연구비가 제공되는 환경에 있다면 폐쇄성은 더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목이 곧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신다.(신9:13)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으며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경우 목이 곧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업 상황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은 태도에서 나온다. 구속사의 설교문에서 나타난 에드워드의 온유함은 어린아이와도 같다. 어린아이와도 같은 온유함 속에 에드워드는 맑고 생명력 있는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사랑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설교자가 바라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설교가 비판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설교의 목적은 신자의 변화이다. 끊임없이 정욕과 탐욕으로 기울어가는 마음을 일깨우고 진리의 바른 길을 통해 천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등장해서 다시금 천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설교자의 참된 책무는 성도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김홍만, 2001:17)

참된 사랑에 바탕을 둔 온유함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

리를 말할 것(speaking the truth in love)을 강조하고 있다.(엡4:15) 가까운 관계일수록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더군다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외면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사랑할수록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 온유함을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온유함을 특징짓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상대방의 변화를 염두에 두는 지도자라면 온유함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부 경우 지도자가 의욕만 앞서고 비판만을 일삼을 때 사람들이 떠나간다. 결국 스스로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된다. 그 누구도 비판만을 일삼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비난만을 일삼는 사람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없다.

마크 놀은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기독 지성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박세혁, 2010)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문제해결력을 지닌 지도자를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온유함으로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참된 의미에서 문제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온유함은 인간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에드워드는 감정의 요동을 조용히 잠재우고 온유함으로 성도를 일깨운다.

## 2. 연속 봉독(Lectio continua)

일반학문의 교육방법론은 철저하게 연속봉독의 방법을 따른다. 학교교육에서도 책 한권을 공부할 때 순서대로 공부하지 절대로 일부분을 뒤죽박죽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교회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이 용인되고 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매주 설교주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보이지 않는다.

에드워드는 연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 연속적인 방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날개의 지식을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공부의 뼈대를 세우는 것과도 같다.

뼈대 없이 살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는 제대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오전예배, 오후예배,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를 통해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있다. 그렇지만 매번 듣는 설교주제는 따로 떨어져 있다. 즉 연관성이 없다.

교육학에 있어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원리는 서로간의 상관관계이다. 지식은 이전의 것을 전제로 새롭게 연결되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새로운 배움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배움은 점진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떨어진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통일성을 상실하게 된다. 성경은 통일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서신마다 말씀하고자 하는 저작 목적이 정해져 있다. 서신서 안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성경 구절만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 이른다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연속봉독의 방법을 통해 설교하면 1년에 성경 66권 중 한 권을 제대로 설교하기도 어렵다. 목회자 역시 더욱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성도들의 지루함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 연속봉독의 방법을 적용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차선으로 목회자가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을 끌어와 설교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교리문답서에 제시된 흐름대로 설교를 하되, 매 주일 그 흐름에 따라 설교 본문은 바뀌는 것이다. 이런 경우 목회자가 건전한 주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택 봉독의 방법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치명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교리문답과 같은 건전한 텍스트를 주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공, 건강, 부와 같은 신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주제로 삼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영적 양식은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구속사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성경의 한 부분을 오랫동안 강해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면 신자들에게 참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진정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것이다.

에드워드는 구속사를 설교하면서 설교 본문은 매번 같은 본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29편의 설교를 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에드워드의 설교 방법은 연속 봉독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왜냐하면 설교가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시작 부분에서 인간의 타락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에드워드의 설교는 역사성을 띄고 있다. 설교 본문에서 역사적인 주제들은 종종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반 역사가들의 주장 역시 종종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라는 사실이다. 역사적 예수라는 개념은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예수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며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연속 봉독의 방법은 텍스트 안에 숨겨진 줄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에드워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줄기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교를 통해 발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교회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모두 유용하다. 결국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바른 줄기를 가르쳐서 줄기를 통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찰력을 얻는 배움이란 관통하는 진실 (penetrating truth)을 찾는 것이다.

### 3.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은 값싼 것으로 취급되기 쉬웠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나가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헌금을 내는 자신들을 통해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현대의 전도 법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으도록 하는 방법의 공통점은 마치 복음을 상품처럼 파는 것이다. 설교자는 복음을 팔기 위해 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받는 대가는 신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헌금이다.(김홍만, 2013:120)

그러나 에드워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은 본질을 찾아내는 힘이다. 에드워드는 성경에 나타난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에드워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연구와 목회상담에 시간을 보냈다.

현대의 교육 환경을 보면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교육이나 일반교육이나 선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이다. 교회교육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교가 되겠고, 일반교육에 있어서는 수업이 될 것이다.

목회환경에 있어서 현대 한국 교회는 설교 횟수가 많은 편이다. 새벽기도회 6편, 주일 오전, 오후에 배 2편, 수요기도회 1편, 금요기도회 1편,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10편의 설교를 매주 한다. 일주일에 두 편 정도의 설교를 하는 유럽의 목회자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양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적 차이는 결국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 많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목회자 스스로도 그 설교를 적용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가르침은 자신의 삶에서 체득된 가르침이다. 체득된 가르침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가르침에는 힘이 없다. 자신의 삶과 분리된 지식을 가르치기에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듣는 사람도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가르침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는 설교자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하며 경험하지 않은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목회자 스스로도 설교 내용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실험적인 설교를 하게 된다면 신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상당하다.

또한 성도들의 애경사가 많다. 결혼, 개업, 장례와 같은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애경사를 챙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물론 진정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목회자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사역 외적으로 일이 많아질 때, 그것이 과연 목회자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전자문서의 보급을 통해 업무의 양이 대폭 증가했다. 교사들은 수업 이외에도 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에 수업은 뒷전이 되고 업무 중심의 일을 하게 된다. 수업을 잘 못해도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업무에 실수하면 엄청난 질타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수업보다는 업무수행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업무의 증가폭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교의 핵심은 수업이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성장한다. 그러나 수업 이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행사나 대회가 여전히 많기에, 수업에 관심을 가지기란 좀처럼 어렵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교육정책들은 수업 이외에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일들을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붕괴는 교실붕괴로 이어진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아이들과 교사를 힘들게 한다. 교사들 중에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 중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정신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탈진한 교사는 도무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에너지를 몰두할 수가 없다. 교사도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다.(엄기호, 2013)

에드워드가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부분의 시간을 본질적인 일을 찾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본질적인 일에 집

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람들이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다. 정리되지 않는 상황은 인간관계일수도 있고 살아가는 환경일수도 있다. 자신이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씩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4. 가르치는 자의 도덕성

가르치는 자의 도덕성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같은 일탈 행동이라도 교사나 목회자가 일탈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언론에서는 보다 높은 강도로 비판한다. 그만큼 가르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은 가르치는 사람이 충분한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가르치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도덕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바른 말을 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선생은 선생이라는 자리 때문에 스스로의 도덕성과 맞지 않는 높은 수준의 도덕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 그런 가운데 선생 자신은 여전히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선생은 가르치는 현장을 벗어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게 한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가르친다고 해서 학생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선생이 학생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죄의 힘은 강력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참된 의미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은혜(Sola Gratia)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한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지속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은혜에 의한 변화는 그 지속력이 영원하다. 인간이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겸손한 마음은 곧 낮아진 마음이다.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겸손하게 된다.

에드워드의 전도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심령을 낮추는 데 있었다.(김홍만, 2015:12) 높아진 심령으로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도덕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덕성이다. 바른 신앙인이라면 건전한 신앙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무 율법적인 생활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죄의 참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낸 것이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셨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공짜로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

목이 곧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신자 역시 무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높아진 심령에는 진리가 와서 머무를 장소가 없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져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김홍만, 2015:50)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경건을 향한 그의 끊임없는 고민의 산물이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깨달은 경건의 원리를 책을 통해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영혼들을 깨우고 있다. 에드워드의 구속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의 원천은 바로 낮아진 마음자세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세상의 도덕성과 구별된다. 세상의 도덕성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세상과 정 반대이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코람 데오(Coram Deo)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증거 하는 말이다.(유해무, 2012:12)

결국 가르치는 자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한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가르침의 본질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높은 자리에 쉽게 올라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 5. 연약과 미련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연약과 미련함이다.(유해무, 2012:57)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왕의 왕이셨다. 그렇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 속에도 그리스도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의 왕권을 왜 보여주시지 않았는지 질문한다. 그랬으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 질문하기도 한다. 힘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약과 미련함은 하나님의 방법이였다.(고전1:25) 그리스도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리스도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연약과 미련함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이다.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보기에 약하고 미련했다. 오늘날 사람들의 세계관도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다르지 않다. 한국 사회 역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를 좋아한다. 교회 역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목회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신자들은 수동적이 되어 목회자의 방향성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학교에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휘어잡는 교사는 인정을 받는다. 동료 교사에게서는 어떻게 그런 강력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휘어잡는지 경이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에게 강한 교사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절대 함부로 대들지 않는다. 강한 교사는 학교생활을 하기가 참 편하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들은 스스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죄로 몰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인간의 낡고 더러운 옷을 그분의 점 하나 없는 순결한 옷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셨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김홍만, 2001:106)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듣기 어려운 거북한 말이요, 부정하고 싶은 진리일 뿐이다. 그렇지만 십자가 없는 기독교란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자기부인의 길이요 낮아지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규모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지도자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하며 역량에 있어서도 유능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에는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권위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바리새인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사도 바울의 순종의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길이었다. 장막을 지어 물질을 마련해야만 했다. 늘 생명의 위협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채찍과 매질을 수시로 당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의 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보람이 있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는 신약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경(canon)을 추가했다. 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고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늘 그와 함께했다.

가르치는 자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상의 강함과 지혜에 대해 연약하고 미련할 필요가 있다. 세상적인 강함과 세상의 지혜는 결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가르치는 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 6. 진실을 말하는 것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학생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목회 현장이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경험하는 사실이다. 이 경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성해야 할 점은 과연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철저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깊은 신학 묵상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진실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진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실은 거울과 같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 진실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를 싫어하고 배척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를 핍박했다. 전승에 따르면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만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중세 사회의 경우 진리를 말했을 때 화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기득권 세력은 진리를 인정했을 때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를 입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끔찍한 형벌을 내린 예를 역사에서 종종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할 경우 여전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학자의 경우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때로는 학교에서 승진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택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는 것이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 편승하면 적어도 핍박받는 일은 없게 된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생기는 수입도 많다. 기득권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을 경우, 그 기득권을 자신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에게, 기득권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풍요와 안정은 쉽게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소망을 바란다. 비록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기를 바라신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할 때, 진실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일지 모르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는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7. 경건한 자를 보존해야 할 사명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신 경건한 자손의 흐름이 있다. 반면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 속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다. 어느 길에 서야 할지 택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신자들이 경건한 자손의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해야 한다.

죄악이 관영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셨다.(김귀탁, 2007:54)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였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같이 끔찍한 박해를 당한 종교는 없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저 박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악이 일어설 때마다 그것들을 퇴치할 수단들을 예비하셨다. 진리의 영역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전개되었다. 악이 사납게 날뛰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분의 경건한 자손들은 진리의 흐름을 이어갔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한 자를 보존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 경건한 자를 보존하는 것은 바른 말씀사역으로만 가능하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신학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상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역사에서는 악이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회와 설교를 통해 경건한 자들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권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악한 생각과 행동은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장로들은 특별히 성도들의 상태를 분별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악하고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별하고 정화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한다.

현대 교회의 전도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전도의 방향이 바뀌어 교회 내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깨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경건한 자손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교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대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마다 총동원전도주일, VIP초청잔치, 알파 코스와 같은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엄청난 교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천만 성도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기독교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언제가 더 컸을까?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비록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지만, 그 신자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었고, 독립운동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현대 한국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외적 성장에 몰입한 결과이다. 규모는 크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비록 교회가 작을지라도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교회 교육은 교회의 경건한 자손을 보존하는 쪽으로 모아질 필요가 있다.

#### IV. 맺는 말 -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먼저 학교를 세웠다. 그만큼 학교가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여전히 교육은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가르치는 바른 스승을 기다리고 있다.

선생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기에 또한 보람된 길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교육자에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는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 비록 미숙할지라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차차 유능함을 갖추어 가자. 유능함만을 위해 달리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핵심이다. 결국 온전한 회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온다. 선생 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늘 마음속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참된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신자가 되자.

참고문헌

- 김기찬 역(1995). 『거기 계시는 하나님』. 서울:생명의말씀사.  
김귀탁 역(2007). 『구속사』. 서울:부흥과개혁사.  
김홍만(2001).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서울:생명의말씀사.  
김홍만(2013).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라』. 서울:킹덤박스.  
김홍만(2015). 『전도설교의 맥』. 서울:한국청교도연구소.  
김홍만 역(2012). 『장원 양우 상론』. 서울:부흥과개혁사.  
고영민 역(2006). 『기독교강요』. 서울:기독교문사.  
박세혁 역(2010).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IVP.  
안중희 역(2013). 『은밀한 세계관』. 서울:IVP.  
엄기호(2013).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서울:따비.  
유해무(2012). 『코람데오』. 여수:그라티아.

[https://www.sb.ac.kr/board/bbs/board.php?bo\\_table=sb\\_comm\\_060910&wr\\_id=20](https://www.sb.ac.kr/board/bbs/board.php?bo_table=sb_comm_060910&wr_id=20) (검색일 2017.4.27.)